

ISSN 2765-3005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해외 국립도서관의 시청각자료 디지털 컬렉션 사례 조사

Vol. 20

2024. 5.

ISSUE PAPER

NCK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국립도서관의 시청각자료 디지털 컬렉션 사례 조사

최재은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Vol. 20

2024. 5.

I. 들어가며	02
II. 국립중앙도서관의 시청각자료 디지털 컬렉션 현황	02
III. 시청각자료 디지털 컬렉션 관련 연구	03
IV. 해외 국립도서관의 시청각자료 디지털 컬렉션 현황 조사	06
1. 자료의 유형별 컬렉션	06
2. 자료의 주제별 컬렉션	09
3. 재사용 및 뷰어 관련	10
V. 결론 및 시사점 도출	12
참고문헌	14

주요 키워드

시청각자료,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디지털 컬렉션, 해외 국립도서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제20호

발행일 2024년 5월 31일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0799

팩스 02-590-0546

누리집 <https://nl.go.kr>

ISSN 2765-3005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으며,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변경·배포할 수 없습니다.

해외 국립도서관의 시청각자료 디지털 컬렉션 사례 조사

최재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요약

이 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시청각자료의 디지털 서비스를 개선·발전시키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 의회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스페인 국립도서관의 시청각자료 디지털 컬렉션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디지털 큐레이션 이론과 시청각자료 기록정보서비스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유형, 주제, 재사용, 뷰어 등 네 가지 분석 기준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 국립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양적인 면에서 시청각자료 디지털 컬렉션을 많이 제공하며, 주제로는 자국의 역사, 자국 예술가의 작품과 관련한 컬렉션을 다수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의회도서관은 저작권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다운로드 포맷을 제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콘텐츠를 재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시청각자료 디지털 컬렉션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 키워드 시청각자료,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디지털 컬렉션, 해외 국립도서관

I. 들어가며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 세계 데이터 트래픽 중 비디오가 차지하는 비중은 66.2%,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박지성, 2022)로 비디오, 이미지, 오디오 등 시청각 데이터가 텍스트를 제치고 정보의 바다에서 주류가 된 지 오래다. 많은 자료가 디지털로 생산되어 디지털로 서비스되며, 이러한 흐름은 점차 가속화하고 있다. 전 세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은 2027년까지 매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임경호, 2022), 숏폼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향후 5년간 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새봄, 2024).

도서관에서는 전통적으로 물리적 매체(디스크, 카세트 등)에 담긴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고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전용 재생기기를 이용해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물리적 매체는 훼손, 재생기기의 단종 등 여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에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서비스하려면 가치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디지털화해야 한다(Oliver & Harvey, 2016). 또한 정보의 디지털 생산과 배포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수집 단계부터 디지털로 생산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누리집 등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도서관의 시청각자료를 어떻게 디지털로 서비스할지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이 글에서는 도서관 시청각자료의 디지털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시청각자료 디지털 서비스를 선진적으로 제공하는 미국 의회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스페인 국립도서관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여러 시청각자료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로 조사를 한정하였고, 조사 기준을 마련하고자 선행 연구에서 시청각자료 디지털 서비스의 중점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국립도서관의 시청각자료 디지털 컬렉션을 분석했으며,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서비스를 개선할 때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 국립중앙도서관의 시청각자료 디지털 컬렉션 현황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의 주제별 컬렉션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디지털화 자료 중 가치 있는 지식문화자원을 선별한 뒤 콘텐츠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2024년 2월 기준 총 52건이 구축되어

있다. 각 컬렉션은 ‘귀중본(3건)’, ‘역사(13건)’, ‘문학(8건)’, ‘음악(2건)’, ‘시사경제(14건)’, ‘고문헌(12건)’ 등 여섯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다. 이미지는 52건 컬렉션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원본 이미지보다는 컬렉션 내용을 설명하는 신문기사 사진이나 외부기관 이미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오디오가 포함된 컬렉션은 ‘뿌리 깊은 나무 판소리 감상회’와 ‘국민가요 원곡’ 두 건뿐으로 아직은 적은 양이 구축되어 있다. 비디오의 경우, 컬렉션을 홍보하는 비디오는 게시되어 있으나 콘텐츠 목록에 비디오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컬렉션의 콘텐츠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인 경우에 서지사항이나 원문보기로 연결된다. 원문보기는 전용 뷰어로 연결되므로 다소 번거롭고 로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저작권 제한이 없으면 뷰어 내에서 다운로드를 허용하지만 해당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는 충분히 설명해 놓지 않았다.

다음으로 관외 이용(무료) 자료 현황이다. 이용자가 도서관 밖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시청각자료의 경우에 오디오가 675개, 이미지·사진이 556개, 영상자료가 1,450개 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을 주제별·유형별로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는 큐레이션이나 컬렉션이 구축되지 않아서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와 조건으로 검색할 때만 자료의 존재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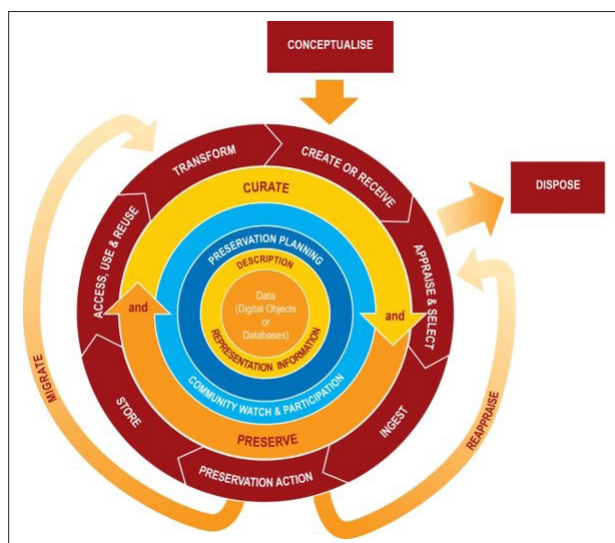
Ⅲ. 시청각자료 디지털 컬렉션 관련 연구

시청각자료의 디지털 컬렉션에 관한 연구는 디지털 큐레이션 이론과 적용, 기록관리 분야에서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의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디지털 큐레이션 이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자료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디지털 개체의 변경과 손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특징을 반영하여 제안된 디지털 큐레이션(Digital Curation)은 데이터의 재현성, 재사용 및 가치의 추가를 지원하고, 생성 시점부터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까지 데이터를 관리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접근성, 보존성, 신뢰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일련의 활동이다(Oliver & Harvey, 2016, pp. 3-15). 디지털 큐레이션에서 다루는 디지털 개체(Digital object)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오디오·비디오와 같은 시청각자료, 소프트웨어, 웹페이지 그리고 이 자료들을 식별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까지 모두 포함한다(Oliver & Harvey, 2016, p. 50).

영국의 디지털 큐레이션 센터(Digital Curation Center, DCC)는 원 모양의 디지털 큐레이션 라이프

사이클 모델로 필요한 디지털 큐레이션 활동을 정의하고 있다([그림 1] 참조). 활동은 크게 ‘전주기 활동’, ‘순차적 활동’, ‘비정기적 활동’ 세 가지로 나뉜다. [그림 1]에서 원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전주기 활동에는 기술(Description)과 표현정보, 관련 커뮤니티의 감시와 참여, 보존계획 등이 포함된다. 전주기 활동은 모든 순차적 활동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순차적 활동으로는 생성(Create)과 수신(Receive), 평가·선택, 반입(Ingest), 보존 활동, 저장, 사용·재사용, 변환 등이 있다. 원 바깥에 있는 비정기적 활동에는 개념화와 처분을 포함한다(Oliver & Harvey, 2016, pp. 37-40).



[그림 1] 디지털 큐레이션 라이프 사이클 모델

출처: <https://www.dcc.ac.uk/guidance/curation-lifecycle-model>

클라인(Klein, 2018)은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비디오 자료의 디지털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 텔레비전 방송국(Public Television Station, PTS)과 독립영화 수집가·도급업자를 대상으로 관찰과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PTS의 경우,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단계를 거쳤다. 특히 데이터 백업과 저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보존하려고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권장하는 MXF 래핑 MPEG-2 포맷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평가·선택 영역 단계에서 수많은 비디오테이프 중 디지털화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독립영화 수집가·도급업자는 부분적으로만 라이프 사이클을 충족하였다. 보존에서는 비디오 보존형식으로 널리 채택된 퀵타임 프로레스(QuickTime ProRes)를 채택하였다. 두 기관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자료에 대한 기술(Technical) 메타데이터와 보존 메타데이터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화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저장 매체의 성능이 낮아져 재생이 어려울 가능성이 큰 자료 순으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시청각자료를 장기적으로 디지털 컬렉션으로 서비스하려면 이처럼 디지털 큐레이션의 모델을 따르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아직 이 모델을 적용한 사례나 연구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은 수많은 물리적 매체 자료 중 디지털화를 진행할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와 자료를 보존할 디지털 저장형식, 관련 메타데이터, 마지막으로 이용자 쪽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재사용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국내 기록관리학계에서는 주로 해외 기록정보서비스 사례를 분석해 시청각 기록의 온라인 서비스 개선을 모색하였다.

정희명, 김순희(2023)는 영미권 국립보존기록관의 인스타그램 기록정보 콘텐츠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인스타그램 개설일, 콘텐츠 수, 팔로워, 팔로잉 등 기본 현황과 각 게시물의 해시태그와 ‘좋아요’ 등 이용자 호응도가 높은 게시물의 내용(주제)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 국립보존기록관은 인스타그램 특성에 특화된 이미지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고, 해시태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기관이 보유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인스타그램을 연계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개인 이용자를 팔로우하고 좋아요, 댓글, 태그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고 있었다.

임진영, 이해영(2020)은 온라인 접근성, 검색 및 온라인 열람, 아웃리치(확장) 서비스 세 영역을 중심으로 해외 공영방송사의 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국 BBC, 프랑스 INA, 일본 NHK 아카이브는 자료 일부를 대중이 검색하고 활용하도록 공개했다. 또 해외 공영방송사는 각 나라 상황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하나 국내 공영방송사는 이러한 서비스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경한, 김건(2023)은 영미권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기록정보 콘텐츠의 유형, 다운로드 여부, 주제, 섬네일, 개요 등의 기준으로 콘텐츠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미권 국립극장에서는 인권 관련 내용, 사회·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건 등을 콘텐츠화하여 국립극장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고, 주제별 콘텐츠 개수도 역사/사건 10건, 장르/작품종합 7건, 사회 이슈와 인물/직업이 각각 4건, 기타 2건 등으로 다양한 주제가 분포되어 있었다.

이상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해외 국립보존소, 공영방송사, 공연예술박물관 등의 사례에서 콘텐츠 유형과 개수, 주제 등이 국내 기록정보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직 이런 기준을 적용해 국내 도서관의 시청각자료를 디지털로 서비스하려는 조사나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기에 이 글에서는 해외 국립도서관의 시청각자료 디지털 컬렉션을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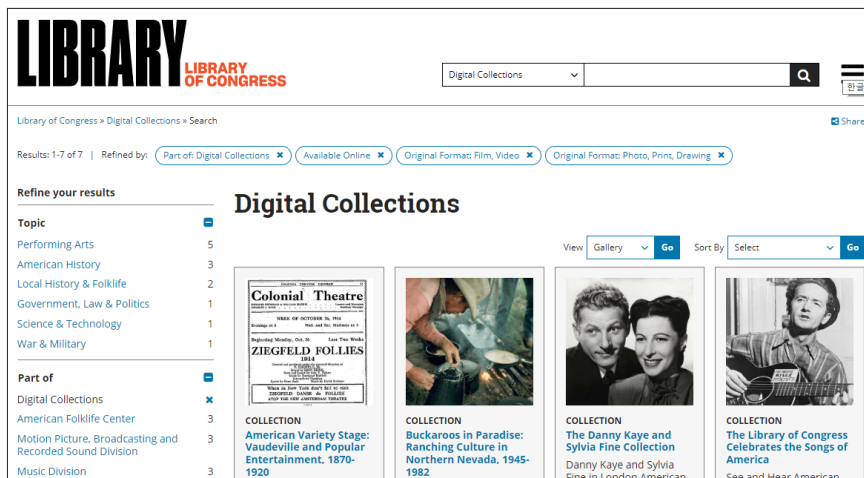
Ⅳ. 해외 국립도서관의 시청각자료 디지털 컬렉션 현황 조사

이 장에서는 해외 국립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시청각자료 디지털 컬렉션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항목으로는 먼저 자료의 유형과 주제를 포함했고 컬렉션 구축의 양을 알고자 그 수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는 재사용과 관련하여 다운로드 가능 여부, 저작권 안내 사항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편의성과 관련해 뷰어 생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1. 자료의 유형별 컬렉션

이 글에서는 자료의 유형 중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세 가지를 선택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때 이미지에서 지도와 악보는 제외하였다.

먼저 미국 의회도서관의 디지털 컬렉션(<https://www.loc.gov/collections>)은 이미지에 해당하는 포토(Photo), 프린트(Print), 드로잉(Drawing)의 컬렉션이 140건이고, 오디오(Audio)는 63건, 비디오인 필름(Film)과 비디오(Video)는 27건으로 이미지 > 오디오 > 비디오 순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 중 33건의 컬렉션은 복수의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한 컬렉션 안에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관련 검색 기능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미국 역사에 관해 비디오와 이미지가 동시에 포함된 컬렉션을 검색하고 싶다면 [그림 2]와 같이 유형(Format) 패킷 조합 검색을 할 수 있다. [그림 2]는 비디오와 이미지 유형을 동시에 포함하는 컬렉션을 검색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 미국 의회도서관의 디지털 컬렉션 검색 화면 예시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디지털 컬렉션인 갈리카(Gallica, <https://gallica.bnf.fr>)에서 오디오는 99건, 비디오는 55건, 이미지는 54건으로 확인되어 오디오 컬렉션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유형별 컬렉션은 중주제와 소주제로 나뉜다([그림 3] 참조). 예를 들어, 비디오 컬렉션 안에서도 교육용 비디오 또는 교육용 비디오 중에서도 프랑스 역사와 관련된 비디오 컬렉션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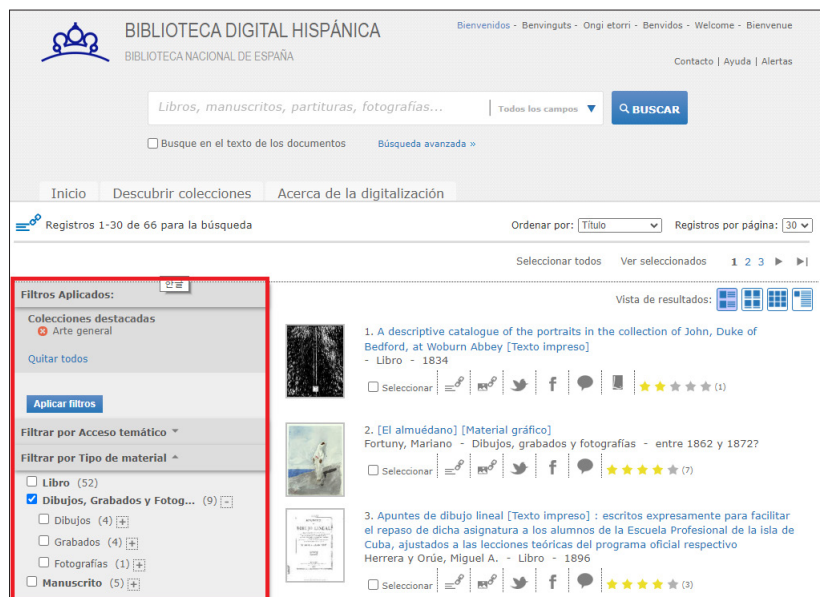


[그림 3] 프랑스 국립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유형별 브라우징

스페인 국립도서관의 디지털 컬렉션인 히스패닉 디지털도서관(<https://bdh.bne.es/bnearch/Inicio.do>)은 시청각 디지털 컬렉션을 45건 제공한다. 이미지 컬렉션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오디오가 22건이며 비디오 컬렉션은 제공하지 않는다. 히스패닉 디지털도서관은 컬렉션 자체를 유형별로 검색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지만 [그림 4]와 같이 컬렉션 구축 자체가 유형별로 되어 있어 특정 유형의 컬렉션을 원하는 이용자는 클릭을 하면 즉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컬렉션 내에서도 유형별로 필터링할 수 있다. [그림 5]는 ‘일반 미술’ 컬렉션에서 ‘그림·판화’, ‘도서’, ‘원고’ 중 ‘그림·판화’로 필터링한 것(그림의 왼쪽)을 제공하는 화면이다.



[그림 4] 히스패닉 디지털 도서관의 컬렉션(일부)



[그림 5] 히스패닉 디지털 도서관의 컬렉션 내 유형별 필터링 기능

이상의 유형별 컬렉션을 정리하면 미국 의회도서관의 경우 이미지 > 오디오 > 비디오 순으로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오디오 > 비디오 > 이미지 순, 스페인 국립도서관은 이미지 > 오디오 순이며 비디오 컬렉션은 제공하지 않는다(<표1> 참조). 그리고 미국 국회도서관은 한 컬렉션 안에 복수 유형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패킷 조합을 이용해 여러 유형이 포함된 컬렉션을 검색할 수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유형별 컬렉션 안에서도 목적별, 주제별, 작가별로 세부 컬렉션을 브라우징할 수 있다. 스페인 국립도서관의 경우 한 컬렉션 안에서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필터링할 수 있다.

〈표1〉 해외 국립도서관의 자료 유형별 컬렉션 구축 건수(단위: 건)

도서관명/유형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합계
미국 의회도서관	140	63	27	230
프랑스 국립도서관	54	99	55	208
스페인 국립도서관	23	22	0	45

2. 자료의 주제별 컬렉션

이 절에서는 영미권 국립예술극장의 아카이브를 분석한 오경한, 김건(2023)의 연구를 참고하여 해외 국립도서관의 시청각 디지털 컬렉션의 주제를 역사/사건, 인물/직업, 장르/작품, 사회 이슈, 기타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미국 의회도서관의 경우 역사/사건 107건, 장르/작품 70건, 인물/직업 39건, 사회 이슈 8건, 기타 6건 순이었다. 역사/사건의 경우 미국 독립전쟁, 흑인 민권운동, 제1차 세계대전 등과 같이 미국 역사의 굵직한 사건을 다룬 컬렉션이 가장 많았고, 이어 콜로라도, 북대서양 지역, 미국 남부 등 특정 지역 주민의 생활사를 다룬 자료가 많았다. 이 밖에 러시아, 중동 등 외국 역사와 관련된 컬렉션도 포함되어 있었다. 인물/직업과 관련해서는 작곡가, 바이올린 연주가, 발레리나, 운동선수, 코미디언과 같이 예체능 분야에서 활약한 인물들의 컬렉션이 가장 많았고 대통령 관련 자료 몇 건을 포함하였다. 장르/작품에서는 판화, 드로잉, 스테인드글라스 등 다양한 유형의 미술 장르와 종교음악, 애국가, 클래식 등과 같은 음악 장르를 포함하고 있었다. 사회 이슈로는 경제, 여성인권, 아동인권 등을 포함하였고 기타로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온라인 교육을 받는 방법 등이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경우 장르/작품이 7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물/직업 53건, 역사/사건 66건, 기타 14건, 사회 이슈 2건 순이었다. 장르/작품에는 프랑스 예술 영화감독의 작품과 크리스마스 노래·음악 그리고 일본, 그리스 등 외국의 미술과 음악 등도 포함한다. 인물/직업으로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 관련 비디오부터 프랑스에 거주하는 작가 알베르토 망구엘(Alberto Manguel)의 강연 영상 등이, 역사/사건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음성기록, 파리 시내의 옛 풍경과 건물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는 여러 주제 분야를 골고루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페인 국립도서관의 주제는 장르/작품 관련이 4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오디오 자료의 경우 스페인에서 유래한 볼레로를 비롯하여 스페인 음악가의 옛 음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미지 역시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와 같은 스페인 출신 작가의 작품 관련 이미지, 프란시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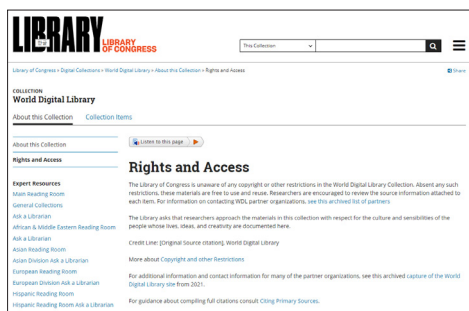
고야(Francisco de Goya) 등 스페인 출신 미술가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스페인 관련 예술작품을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 예술 전공자와 관련 종사자가 유용한 정보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2> 해외 국립도서관의 자료 주제별 컬렉션 구축 건수(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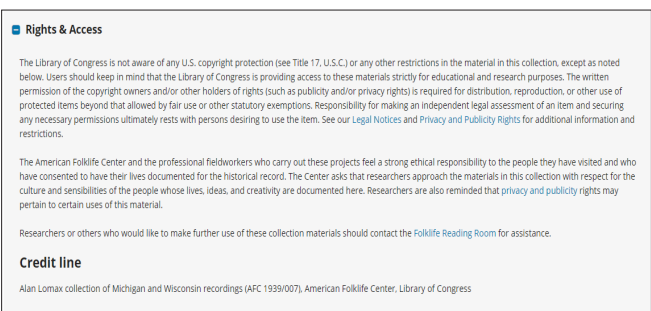
도서관명/유형	역사/사건	인물/직업	장르/작품	사회 이슈	기타	합계
미국 의회도서관	107	39	70	8	6	230
프랑스 국립도서관	66	53	73	2	14	208
스페인 국립도서관	2	-	41	-	2	45

3. 재사용 및 뷰어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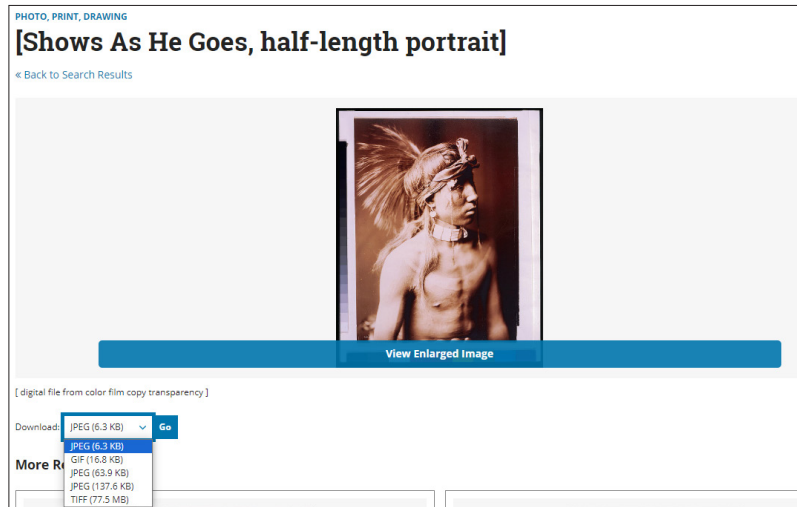
미국 의회도서관의 경우에 이용자들이 시청각자료를 재사용하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 안내는 컬렉션 단위로 또 각 콘텐츠 단위로 충실히 되어 있다([그림 6-1]과 [그림 6-2] 참조). 다운로드 가능한 작품인 경우 이미지는 JPEG, 오디오는 MP3 또는 WAV, 비디오는 MP4, MOV, GIF 등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복수 형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림 7]과 같이 이용자가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의 시청각자료 디지털 컬렉션에서 무엇보다 편리한 점은 별도 뷰어 없이 페이지 내에서 모든 콘텐츠를 보고 다운로드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6-1] 미국 의회도서관 컬렉션 단위 저작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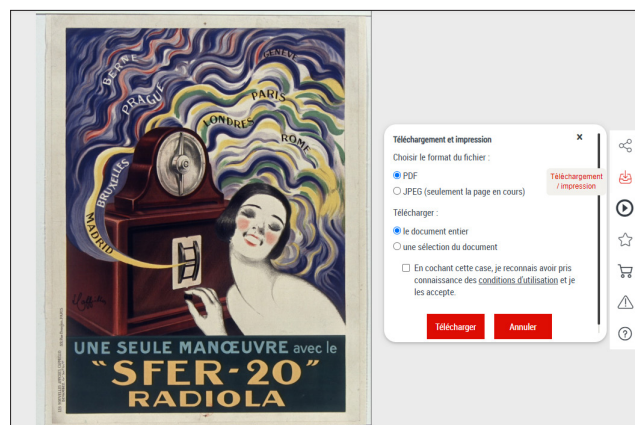


[그림 6-2] 미국 의회도서관 콘텐츠 단위 저작권 안내



[그림 7] 미국 의회도서관의 이미지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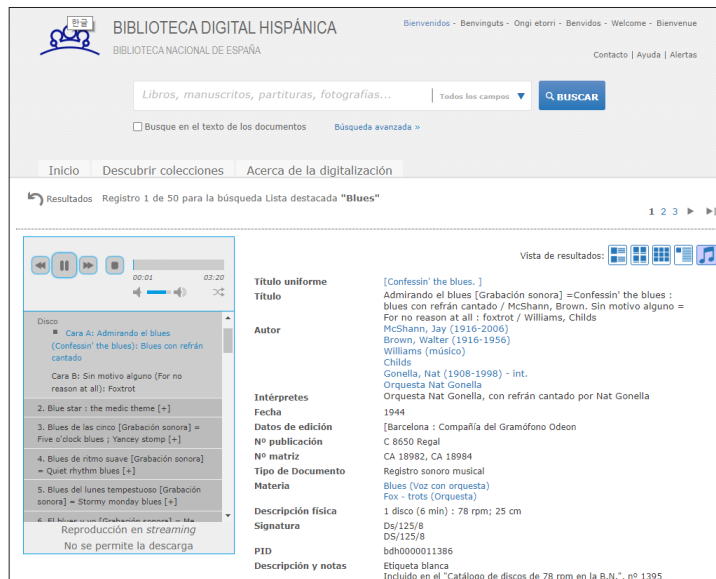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경우에 저작권 관련 문구에 동의해야 다운로드 가능하다. 저작권 관련 문구는 별도 창으로 연결되는데, 해당 문구에는 ‘갈리카의 콘텐츠가 공개 도메인 자료이며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무료’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다운로드 가능한 작품의 경우에 이미지는 PDF 또는 JPEG 형식으로 제공되며 오디오와 비디오는 다운로드 가능한 작품을 찾지 못하였다. 또한 모든 콘텐츠를 열람할 때 전용 뷰어가 생성된다.



[그림 8] 갈리카의 뷰어와 콘텐츠 다운로드 기능

스페인 국립도서관의 경우에 이미지는 뷰어가 생성되나 오디오는 뷰어 없이 관련 트랙을 모두 스트리밍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미지는 PDF 또는 JPEG로 선택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오디오와

비디오는 다운로드 가능한 작품을 찾을 수 없었다. 다운로드가 가능하면 비상업적·상업적·개인적 사용이 모두 가능하다는 문구가 표시된다.



[그림 9] 히스패닉 디지털도서관 오디오 스트리밍 기능

V. 결론 및 시사점 도출

시청각자료를 디지털로 서비스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지만 아직 도서관계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나 조사는 미미한 편이다. 이 글에서는 시청각자료의 디지털 서비스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선진적인 디지털 컬렉션을 제공하는 미국, 프랑스, 스페인 국립도서관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의회도서관은 이미지 컬렉션 140건, 오디오 63건, 비디오 27건을,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오디오 99건, 비디오 55건, 이미지 54건을, 스페인 국립도서관은 이미지 23건, 오디오 22건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에 전체 52건의 디지털 컬렉션에서 제공되는 이미지에는 컬렉션 내용을 설명하는 신문기사 이미지, 외부기관 이미지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오디오가 포함된 컬렉션은 2건, 비디오가 포함된 컬렉션은 없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 컬렉션을 구축할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시청각자료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미 구축된 관의 이용(무료) 시청각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해외 국립도서관은 컬렉션을 자료 유형별로 검색해 브라우징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 이를 참조하여 디지털 컬렉션 내에서 검색과 브라우징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미국 의회도서관은 미국 독립전쟁, 노예제도와 같은 미국 역사 관련 시청각자료를 제공하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프랑스 출신 작가, 화가, 영화감독과 외국 예술작품, 역사적인 음성기록 등 다양한 주제를 구축하였으며 스페인 국립도서관은 스페인 출신 예술가들의 음악, 미술 작품을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청각자료 디지털 컬렉션을 구축할 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장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맞는 컬렉션을 구축하되 국가도서관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한국사, 역사적 위인, 한국 예술가들의 작품 위주로 구축해 볼 수 있다.

셋째, 재사용 및 뷰어와 관련해서 미국 의회도서관이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컬렉션별로 저작권과 권리를 명시할 뿐 아니라 콘텐츠 단위로도 이를 제공한다. 비디오, 이미지, 오디오 모두 저작권이 허락하는 자료는 복수의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하여 의회도서관 콘텐츠를 재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별도 뷰어 없이 의회도서관 페이지 내에서 모든 콘텐츠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처럼 국립중앙도서관 시청각자료를 디지털로 서비스할 때 다양한 포맷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저작권·재사용과 관련해 좀 더 충분한 설명은 물론 뷰어 기능 재검토 등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 글은 그간 조사되지 않았던 해외 국립도서관의 시청각자료 디지털 컬렉션을 분석하여 국내에 도입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미국, 프랑스, 스페인 세 국가만을 조사 대상으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시청각자료의 디지털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향후 좀 더 폭넓은 기관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

- 박지성. (2022. 1. 4.). 소수 글로벌CP·동영상 위주로 데이터 트래픽 쏠림 심화... 글로벌 통신사 투자 '고심.' 전자신문, 17.
출처: <https://www.etnews.com/20220103000171>
- 오경한, 김건. (2023). 영미권 공연예술아카이브 비교·분석을 통한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기록정보콘텐츠 개선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4), 1-24.
- 이새봄. (2024. 1. 29.). '60초 전쟁' 솜뿔 창작자 판 커졌다. 매일경제. 출처: <https://www.mk.co.kr/news/business/10931668>
- 임경호. (2022. 8. 30.). 글로벌 OTT 시장, 2027년까지 매년 20% 커진다. Pd Journal. 출처: <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4072>
- 임진영, 이해영. (2020). 방송 영상자료의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4), 107-128.
- 정희명, 김순희. (2023). 영미권 국립보존기록관 인스타그램의 기록정보콘텐츠 사례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2), 1-26.

국외

- Klein, A. (2018). Digital Curation for Audiovisual Materials: Two Case Studies of Non-Academic Repositories. Master's Paper for the M.S. in L.S degre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United States.
- Oliver, G., & R. Harvey. (2016). Digital curati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nd e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웹사이트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https://nl.go.kr/NL/contents/N20103000000.do>> [2024. 2. 14.]
- 미국 의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https://www.loc.gov/collections/world-digital-library/about-this-collection>> [2024. 2. 15.]
- 프랑스 국립도서관 갈리카 <<https://gallica.bnf.fr/accueil/fr/content/accueil-fr?mode=desktop>> [2024. 2. 16.]
- 스페인 국립도서관 히스패닉 디지털도서관 <<http://bdh.bne.es/bnesearch/Inicio.do>> [2024. 2. 19.]